

“생애주기 동안 축적되는 노년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 촉구”

ADB, UNESCAP,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노년기 불평등 해소를 주제로 제 1회 공동 웹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웹세미나는 Kaveh Zahedi UNESCAP 사무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David E. Bloom 하버드 경제인구학 교수의 비디오 프레젠테이션과 파키스탄 정부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 의장인 Sania Nishtar 박사 및 말레이시아의 카자나 연구소(Khazanah Research Institute) 수석 고문인 Jomo Kwame Sundaram 박사의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웹세미나에서는 노년기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방안(건강 및 소득의 관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환영사: Kaveh Zahedi UNESCAP 사무차장

- 노년기 불평등은 생애주기 동안 축적되며 심화되는 현상으로, 2050년에는 노인이 전 세계적으로 2배까지 증가하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코로나 19 팬데믹은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취약계층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침. 특히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고립의 위험이 가장 높고 생계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함. 유엔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노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팬데믹을 계기로 노인에 대한 차별에 더욱 주목하게 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특히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빈곤하고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임. 낮은 교육수준이나 디지털 문맹 또한 노년기 불평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노인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

- 또한 젠더적 관점도 중요한데, 초고령 노인 중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독거 노인 중 높은 비율이 여성이기 때문임. 여성노인은 생애주기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 때문에 남성 노인에 비해 생활을 위한 저축이나 연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도 함.

(2) “아시아 인구 고령화와 경제 양극화(비디오 프레젠테이션)”: David E. Bloom 하버드 경제인구학 교수



Webinar: How can we reduce inequalities in later life as societies age?
Wednesday 14 October 2020 at 15:00-16:30 ICT

ADB HelpAge International UNITED NATIONS ESCAP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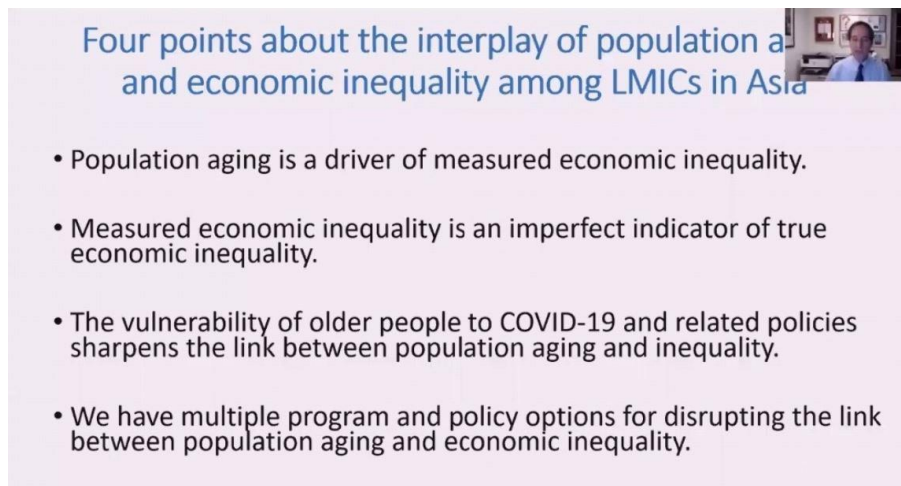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Polarization in Asia”

David E. Bloom (1), Maddalena Ferranna (1), and Benjamin Seligman (2)

(1) Harvard T. 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2) VA Boston Healthcare System & Harvard Medical School

- 인구 고령화는 측정된 경제적 불평등(measured economic inequality)의 동인이 되나, 측정된 경제적 불평등은 실제 경제적 불평등의 불완전한 지표임.

- 또한 노인의 코로나 19 에 대한 취약성은 인구 고령화와 불평등 간의 관계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옵션이 존재함.



Four points about the interplay of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inequality among LMICs in Asia

- Population aging is a driver of measured economic inequality.
- Measured economic inequality is an imperfect indicator of true economic inequality.
- The vulnerability of older people to COVID-19 and related policies sharpens the link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inequality.
- We have multiple program and policy options for disrupting the link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inequality.

(3) 종합토론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노년기 차별의 양상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의 사회문화적 양상을 고려하여 노인 불평등을 분석해야 함. 또한 사회 구조,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배경에 따라

생애주기로부터 축적되는 불평등이 노인 개개인에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적 처방도 이러한 자료에 기초해야 함.

- 노년기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 등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핵심**이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여 심화되는 불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19 팬데믹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척 중요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보편적 의료보장, 노인 돌봄 등 핵심적인 아젠다들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한국, 베트남 등이 우수한 팬데믹 대응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등 아시아는 코로나 19 시기를 비교적 잘 이겨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노인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뉴노멀에 대비해야 함.

또한 이날 웹세미나에서는 생애주기 동안의 불평등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영상이 공유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웹세미나에서는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요약 및 정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영미 연구원 (lym3663@asemgac.org)